

# 중국 유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호, 진춘화\*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The Impacts of Chinese Stud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Zhenghao Jin, Chunhua Jin\*  
Assistant Proc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을 매개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내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은 주관적 웰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자존감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지각된 사회적 지지, 주관적 웰빙, 자존감, 중국 유학생, 유학생 관리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verifying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elf-Esteem. In additi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was clearly identified as a key variable that can lead to Subjective Well-Being. To verify thi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Chinese students who studying in Korea universiti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improves self-esteem. Furthermore, self-esteem was found to increase the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Thus,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thes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ceived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Self-esteem, Chines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Chunhua Jin(chunhua517@honam.ac.kr)

Received August 8,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August 24,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 1. 서론

한국의 학력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 한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 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3,695명으로 COVID-19의 영향으로 2019년 보다 6470명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국가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 유학생이 43.6%로 가장 많았다[1].

한편, 2020년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을 살펴보면 231개의 대학 중 82개의 대학이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지표에서 요구하는 중도탈락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유치된 대학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유학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중국 유학생의 물질생활이 풍부해짐에 따라 갈수록 정신적 차원의 수요가 부각되면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삶에 있어 특정 부분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반응을 포함 하는 폭넓은 개념이며[3], 자존감과 정(+)의 관련성이 높다.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가치평가의 정도이며[4], 인간의 행동과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5]. 사회적 지지는 실제적인 도움 및 정서적 지지를 내포하는 대인 간 교환이며[6],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유학생의 심리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및 질병 증상을 예방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만족감과 유능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 시킨다[7-8]. 유학생은 하나의 특수한 단체로서 주관적 웰빙을 이루려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떠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과 자존감의 매개효과 및 주관적 웰빙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설의 설정

### 2.1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만이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로서 관심, 사랑, 인정, 용납, 이해, 도움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로 정의된다[9].

### 2.2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교수 등 다양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며[10],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자존감이 하락하며, 이에 단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더 구하고 수용하려 할 수 있다[11].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은 향상된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연구변수로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느낌과 같은 감정과 인지도 평가의 정도이며[13], 주관적 웰빙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더욱 긍정적으로 수용한다[14-15].

자존감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인간행동의 중요한 동기이자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6].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긍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만족을 가져다 준다[17].

자존감과 주관적 웰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므로[18]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2: 자존감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자존감의 매개효과

자존감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므로[19-20],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매개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자존감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 3.1 변수의 측정

사회적 지지에 관한 측정지표는 리첸첸(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12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21], 주관적 웰빙에 관한 측정지표는 가오야난(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22]. 또한 자존감에 관한 측정지표는 윤원희(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23],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도는 모두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 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원첸싱(闫卷星)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위챗(Wechat)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일까지이며 총 458부를 배포하여 전량 회수하였으며,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3부를 제외한 총 425부의 데이터가 최종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실증분석

####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는 한국 내 대학에 재학하는 중국 유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286명(67.3%)으로 남학생 139명(32.7%)보다 많았다.

또한 학력 상황을 살펴보면 학부학생이 18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이 122명(28.7%), 한국어교육원생이 117명(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 4.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SPSS 23.0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타당도는 KMO 측도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1의 제시와 같이 충분산 설명력은 75.70%, KMO 값은 0.964이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하였으며, 공통성(Communality)이 0.5 이상인 변수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신뢰성은  $\alpha=.965$ , 주관적 웰빙의 신뢰성은  $\alpha=.963$ , 자존감의 신뢰성은  $\alpha=.917$ 로 적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Component			Communality	Cronbach's $\alpha$
	1	2	3		
Social Support 2	.816	.266	.207	.779	.965
Social Support 5	.813	.281	.224	.790	
Social Support 10	.808	.301	.238	.799	
Social Support 9	.787	.294	.204	.747	
Social Support 6	.787	.327	.181	.758	
Social Support 12	.783	.341	.203	.771	
Social Support 7	.778	.198	.180	.677	
Social Support 4	.759	.298	.201	.705	
Social Support 11	.750	.270	.238	.692	
Social Support 8	.746	.265	.206	.669	
Social Support 1	.726	.299	.242	.675	
Social Support 3	.694	.320	.278	.661	
Subjective Well-Being 1	.323	.805	.320	.855	.963
Subjective Well-Being 6	.325	.783	.280	.797	
Subjective Well-Being 2	.399	.776	.260	.829	
Subjective Well-Being 4	.368	.776	.231	.790	
Subjective Well-Being 7	.346	.773	.298	.805	
Subjective Well-Being 5	.313	.764	.328	.788	
Subjective Well-Being 3	.303	.758	.315	.765	
Subjective Well-Being 8	.423	.688	.340	.769	
Self-Esteem 1	.252	.265	.786	.752	.917
Self-Esteem 4	.158	.266	.785	.712	
Self-Esteem 2	.315	.308	.764	.777	
Self-Esteem 5	.333	.361	.763	.824	
Self-Esteem 3	.289	.387	.709	.736	
Eigenvalue	15.314	2.315	1.295		
Explained variance	61.258	9.259	5.179		
Cumulative explained variance	61.258	70.517	75.696		
Kaiser-Meyer-Olkin	.964				

#### 4.3 상관관계 분석

Table 2.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ocial Support	Self-Esteem	Subjective Well-Being
Social Support	1		
Self-Esteem	.625***	1	
Subjective Well-Being	.729***	.724***	1

\*  $p<.05$ , \*\* $p<0.1$ , \*\*\* $p<.001$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의 제시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자존감은 주관적 웰빙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웰빙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의 제시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 $B=.679$ ,  $SE=.041$ ,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은 주관적 웰빙에 유의한 정(+)의 영향( $B=.679$ ,  $SE=.031$ ,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 가설2는 모두 지지되었다.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p	F	R <sup>2</sup>
Self-Esteem	Social Support	.679	.041	.625	16.455	.000	270.774	.390
Subjective Well-Being	Self-Esteem	.679	.031	.724	21.557	.000	464.708	.523

\*  $p<.05$ , \*\* $p<0.1$ , \*\*\* $p<.001$

간접효과 검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분석을 실시하였다[24].

분석결과는 Table 4의 제시와 같다. 이에 사용된 재추출 표본의 수는 5,000개이며 신뢰구간은 95%이다.

Table 4. The result of Path Analysis

Path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Total effect	.744	.034	.677	.810	
Direct effect	.464	.038	.390	.538	
Indirect effect(s)	SS → SE → SWB	.280	.039	.204	.359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존감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 5. 결론

### 5.1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정(+)의 영향을, 자존감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자존감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자존감과 주관적 웰빙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동일하다[25,26].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기존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존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유학생 관리차원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학생의 유학생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자존감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의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학생이 소속감을 갖도록 하여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유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기타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간 차이점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인들을 설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of foreign students in domestic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2020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50&m=0309&s=moe>
- [2] 2020 Status of Abroad Out of Foreign Students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 [3] E. Diener, E. M. Suh, R. E. Luacs & H. L. Smit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4] M. Rosenberg.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5] H. S. Son. (2003). *Relation Between Student's Perception of Self-Enhancement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 [6] R. L. Kahn & T. C. Antonucci.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 B. Baltes & O. G. Brim(Eds.), *Lifes-Span Developmnet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7] H. K. Kim, M. Hisata, I. Kai & S. K. Lee. (2000). Social Support Exchange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5, 331-347.
- [8] N. Krause, A. R. Herzog & E. Baker. (1992). Providing Support to other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47, 300-311.
- [9] A. Maslow. (1971). *The Farther Reaches a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Press.
- [10]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1] G. MacDonald & M. R. Leary.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2), 202.
- [12] H. K. Jo & H. S. Lim. (2019).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Married Immigrant Woment's Self-Esteem, Depression,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 456-467.  
DOI: 10.5762/KAIS.2019.20.12.456
- [13] F. M. Andrews & S. B. W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14] S. Lyubomirsky & L. Ross.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i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141-1157.
- [15] S. Lyubomirsky & K. L. Tucker. (1998). Implicatio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for Perceiving, Interpreting, and Thinking about Life Events. *Motivation and Emotion*. 22(2), 155-186.
- [16] J. E. Suh. (2016). *The Research of Child Care Teachers' Teaching Strategy, Job Stress, Self-Esteem and Awareness of Infant Human Right Against Infant Challenging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7] E.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18] Y. B. Cha.(2017).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ispositional Gratitude,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iddle-Aged Women's*. Kyungnam University, Masan.
- [19] Z. Z. Dang & J. Dang. (2014). Research about Relation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untry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CJCHC*, 22(3), 330-332.
- [20] M. J. Hu, W. B. Peng, Y. Yang, D. M. Su & D. Z. Liu. (2011). The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ntemporary Rural Migrant Workers.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34(6), 1414-1421.
- [21] Q. Q. Li, X. Wang & N. Wang. (2020).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Commitment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Learning Engagement among Undergraduate Nursing. *Chinese Journal of Modern Nursing*, 11, 1401-1405.  
DOI: 10.3760.
- [22] Y. N. Gao. (2018). *Trave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 Behavioral Modeling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Chang'an University, Xi'an.
- [23] W. H. Yun. (2017). *The Effects of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nagement on the Campus Life Satisfaction and the Altruistic Behavior-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Dongyang University, Yeongju.
- [24] A. F. Hayes.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DOI : 10.1080/03637750903310360
- [25] D. G. Kim(2016).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Mental Heal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7(1), 351-371.
- [26] Y. B. Cha.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ispositional Gratitude,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iddle-Aged Women'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김 정 호(Jin, Zheng-Hao)

[정회원]



- 2003년 6월 : 중국 흑룡강대학교 문학사
- 2006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석사
- 2011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박사
- 2012년 7월 ~ 2016년 12월 : 중국 귀주재경대학교 경제대학 전임강사
- 2016년 4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경영

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기업가 정신, 조직행동
- E-Mail : 2016075@honam.ac.kr

진 춘 화(Jin, Chun-Hua)

[정회원]



- 2006년 3월 :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경영학사
- 2008년 3월 :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 2019년 8월 : 호남대학교 경영학 박사
- 2008년 4월 ~ 2016년 3월 : 일본 무사시노가꾸인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학부 전임강사

- 2016년 4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
- E-Mail : Chunhua517@honam.ac.kr